‘냄새나는’ SRF…기준치 초과 악취 확인하고도 ‘쉬쉬’

지난 6월 배출구서 확인…청정빛고을-광주시 결과 안 알려
‘하루 16시간 이내 가동’ 운영시간도 2017년부터 ‘24시간’
업체 “가동시간-냄새 무관”…주민들, 물리적 개선 조치 요구

광주시 남구 양과동의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 폐기물연료화시설(SRF)에서 최근 허용 기준치보다 높은 악취 수치가 측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SRF 시설이 당초 계약과 달리 운영 첫 해부터 ‘16시간 가동’이 아닌 ‘24시간 가동’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시설과 관련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광주일보 8월 7일 6면〉 가운데 악취 측정을 했던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측정 결과를 알고 있던 광주시, 남구 등 누구도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2~13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광주시 의뢰를 받아 SRF 시설 배출구에서 복합악취 수치를 측정한 결과 법정 허용기준인 희석배수 500을 넘어 669가 검출됐다.

희석배수는 ‘공기희석관능법’에 따라 후각을 이용해 악취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시료를 무취 공기로 몇 배 희석해야 하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해당 공기의 악취를 제거하려면 무취 공기로 669배를 불어넣어야 겨우 희석된다는 의미다. 광주시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민 민원을 받고 악취 수치를 측정한 이후 법정 허용기준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주민들이 최근 악취가 심해졌다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해왔음에도, 기준을 넘어선 악취 수치가 나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와 남구는 7일 구의원,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 시찰 자리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또 해당 시설 운영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청정빛고을 측은 당초 광주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을 당시 16시간을 운영하겠다고 협의한 바와 달리 운영을 시작한 해인 2017년부터 24시간동안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측은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진행한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운영시간 변경에 대한 인허가 서류는 2018년 접수됐고, 해당 사용개시를 허가받은 시점은 2022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정빛고을 측은 2018년 한차례 운영이 중단된 이후 2022년 3월부터 재가동됐고 같은 해 12월부터 100% 가동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앞서 지난 6월 광주시 남구에 “오후 6시 이후에도 폐기물을 반입하고, 야간 시간 작업 중인 것을 입주민과 확인했다”고 지적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와 남구 등은 계약상 업체에 ‘권고’ 조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속적인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광주시 또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광주시가 해당 시설의 직접 투자 주체는 아닌 만큼, 협약서에 따라 청정빛고을 측이 악취 저감 설비를 마련하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광주시 남구 관계자도 “해당 시설은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남구가 직접적인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인근 주민들은 몇년 전부터 매년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명확한 원인 조사나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불과 지난 6일에도 주민들이 남구, 광주시 관계자들과 동행해 현장 시찰을 나갔지만 주민들은 이에 대해 한 마디도 듣지 못 했다는 점에서 해당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 유발 공정을 밀폐하거나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시스템 도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공정 구간에 대한 정압 유지, 시설 밀폐화, 악취 유출 방지 덮개 설치 등의 물리적 개선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구 효천1·2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효천주민협의회는 오는 13일 효천지구 내 8개 단지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악취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낼 예정이다.

한편 업체 측은 “가동 시간과 냄새와는 상관이 없다. 시간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원래는 생활쓰레기만 들어와야하는데 이외에 건설폐기물도 들어가고 볼링공도 들어오는 등 기계를 파손시키는 것들이 자주 들어오기 때문이었다”며 “이로 인해 정지되는 일이 많고 고치는 데도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단없이 돌릴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상무소각장 폐쇄 후 SRF제조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공모를 통해 지난 2014년 현재 운영자인 청정빛고을(대표사 포스코이앤씨)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설계·시공·운영 제반 사항을 포함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건립에 착수, 2017년 1월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나주시가 나주시민의 민원을 이유로 광주 SRF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가연성폐기물연료의 판매처인 한국난방공사의 SRF발전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지연함에 따라 광주SRF제조시설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년여간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

/김진아 기자 jiggi@

광주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7일 북구 우치동물원에서 갈색꼬리감는원숭이들이 얼린 과일 간식을 먹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얼린 과일·황토 샤워·장어·비타민…
우치동물원 여름나기 ‘눈길’

광주시 북구 우치동물원 동물들의 이색 여름나기 장면이 공개됐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우치동물원에서 ‘동물원 여름나기 행사’가 개최됐다.

동물복지 실천 활동을 현장에서 공유함으로써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코끼리·물범·원숭이·곰 등 다양한 동물들의 여름나기 장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시아코끼리 ‘봉이’(1998년생)와 ‘우리’(2010년생) 모녀에게는 과일을 얼린 대형 얼음 간식이 제공돼 코끼리들이 얼음을 부수며 먹거나 샤워를 즐기는 모습을 시민들이 확인했다.

봉이는 어린 시절 라오스에서의 코끼리 타기 훈련으로 생긴 사고후유 정신장애(트라우마)로 인해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코끼리로, 우치동물원은 많은 양의 영양식과 함께 황토 샤워를 통해 햇빛 차단과 피부 건강까지 챙기고 있는 것이 우치동물원의 설명이다.

물범 ‘몰랑이’ 가족에게는 고열량 장어와 비타민 B1 보충을 위한 전용 영양제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더위에 민감한 코아티와 라쿤을 위해 사육사들이 미스트 샤워기를 직접 설치해 시원한 안개 속에서 체온을 낮추는 장면도 보였다.

이와함께 우치동물원은 맹수류인 호랑이, 곰, 사자, 재규어 등에게는 생간을 통째로 제공해 수분과 미량영양소를 보충함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포식행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원숭이류에게는 다양한 열대과일과 특별 제작한 얼음 간식을 제공했다.

또 낙타에게는 냉수 샤워를 병행한 긍정 강화 훈련을 있으며, 곰에게는 얼음 간식과 냉수 목욕을 통해 체온 조절을 돕고 있다.

한편, 우치동물원은 지난 6월30일 환경부로부터 ‘제2호 국가거점동물원’으로 지정돼 제주도를 포함한 호남권 동물원의 동물 질병관리, 복지 개선, 교육 및 종 보전 등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학교 떠나는 젊은 교사들 ‘전국 2위’

5년간 39명 중도퇴직

전남 지역 교원의 중도퇴직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중도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 국·공립 초·중·고 정규교원 중 5년 미만 저연차 중도퇴직교원은 39명이다. 당해 총 교원 수 410명 중 0.27%로, 퇴직교원 비율은 충남(0.28%)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다.

전남의 중도퇴직교원은 2020년 46명(0.31%·전국 1위), 2021년 40명(0.26%·1위), 2022년 58명(0.38%·1위), 2023년 31명(0.21%·2위), 2024년 39명(0.27%·2위)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만에 신임 교원 214명이 그만둔 것이다.

전국 평균은 2020년 0.09%, 2021년 0.09%, 2022년 0.11%, 2023년 0.11%, 2024년 0.12%로 전남의 비율은 매년 평균보다 2~3배 많은 교원이 퇴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매년 독보적으로 퇴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광주의 중도퇴직교원은 2020년 3명(0.03%), 2021년 1명(0.01%), 2022년 0명(0%), 2023년 1명(0.01%), 2024년 2명(0.02%) 등이었다.

현직 교사들은 “전남 지역에서 중도퇴직교원이 잇따르는 데는 교권 추락,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외에도 부족한 교사 수로 인한 ‘악순환’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남 지역 전역을 도는 순환근무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례(여·61) 나주 호남원예고 교장은 “전남에서는 교사가 적다 보니 한 교사가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면서 1·2·3학년을 모두 맡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며 “학생 수가 아닌 학급수 기준으로 교사 TO를 배정하는 등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천 대심도 빗물터널 실효성 의문…중단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광주천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사업과 관련해 광주 환경단체들이 실효성과 타당성이 없다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환경회의(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시민생활환경회의)는 7일 성명을 내고 “기후 위기 시대에 초대형 구조물 중심의 홍수 대응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시민 동의 없는 광주 대심도 터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천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사업은 총 7000억 원을 투입해 광주천 하류 구간 지하 40~50m 깊이에 약 6㎞ 길이의 배수 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환경회의는 “도시 내 물순환 전반을 바꾸지 않는 이상, 거대한 관로 하나로는 반복되는 재난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시민단체 “금융권 교육세 인상 반대 금융기관 후안무치”

광주·전남시민단체가 최근 정부의 금융 관련 교육세 인상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시민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금융관련 교육세 인상은 공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의미한다”면서 “금융권은 자신들의 성장에 기여해 온 사회적 기반을 외면하지 말고 교육이라는 미래 자산에 정당한 몫을 책임지는데 동참하라”고 말했다.

정성홍 상임대표는 “이번 금융권 교육세 인상은 초대형 금융기관 60여개사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를 ‘횡재세’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반대하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투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